

2010. 4. 5 제236호

특 집

세계도시동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세계도시동향 2010. 4. 5 제236호 특집

경제 활성화 및 신산업경쟁력 강화

1. 뉴 미디어산업 집중 육성 (뉴욕)
2. '녹색건축'으로 도시경제 활성화 추진 (뉴욕)
3. 지식기반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 (런던)
4. 첨단기술 개발과 사업 확장을 지원하는 '혁신네트워크' 운영 (런던)
5. 도시경제 성장을 위해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 (런던)
6. 지식기반 산업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혁신전략' 추진 (베를린)
7. 경제성장의 잠재력 발굴 및 혁신 추진 (베를린)
8. '기술이전 제휴'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베를린)
9. 벤처기업의 첨단 신제품을 지자체에서 시범 구매 (일본)
10. 지식기반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지원 (도쿄)
11. 새로운 산업·과학기술 진흥지침 시행 (도쿄)
12. 기업의 신기술·신제품 마케팅 지원 (오사카)

경제 활성화 및 신산업경쟁력 강화

1. 뉴 미디어산업 집중 육성 (뉴욕)

○ 뉴욕시는 오랜 시간 미디어산업에 집중 투자한 결과 새로운 성장과 도약을 위한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됨. 이에 블룸버그 시장(市長)은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市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미디어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발표함.

- 미디어산업계, 학계, 민간 벤처자본이 함께 미디어산업을 장기적으로 육성하고 3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Media 2020' 정책을 시행함. 기존의 전통적인 미디어산업이 정체되어 있는 데 반해 인터넷과 케이블을 이용한 뉴 미디어산업이 빠르게 성장해 市도 디지털 미디어산업에 집중하게 됨. 이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미디어기술 연계 프로그램: 유관산업 종사자와 회사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최근 개정된 연방법에 의거해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미디어 랩: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해 기술을 공유하도록 함.
- 교육 및 기술 지원: 미디어산업체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연관 산업의 종사자를 중심으로 자금, 법률, 교육 등 다양한 자원을 제공함.
- 신규 사업 지원: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신규 사업장을 지원함.
- Big Apps Competition: 매년 유관 소프트웨어기술 경연대회를 열고 혁신 기술과 사업을 선점하도록 함.
- 점프 스타트 뉴 미디어: 기존의 전통적인 미디어산업 종사자가 뉴 미디어산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함.
- 국제적인 구직 프로그램: 지역 기반뿐 아니라 국제사회를 기반으로 한 구직 프로그램을 운영함.

(www.nycedc.com/Pages/HomePage.aspx)

(<http://home.nyc.gov/html/om/html/2009b/pr315-09.html>)

2. '녹색건축'으로 도시경제 활성화 추진 (뉴욕)

○ 뉴욕시는 도시경제 활성화를 위해 '녹색건축'(Green Building)을 추진하고 있음. 2009년부터 건물의 냉·난방 및 환기시스템과 같이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분야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뉴욕대(大)를 비롯한 주요 연구기관에서 '녹색노동력'이라고 부르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고 있음. 시는 전문인력을 양성해 녹색건축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유관 산업을 육성하며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함.

- 에너지효율을 고려한 첫 종합계획인 'Greener, Greater Building Plan'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2030년까지 도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시는 이를 위해 조례(New York City Energy Code)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www.nytimes.com/gwire/2010/02/08/08greenwire-does-chu-takes-rd-budget-request-to-house-scienc-5665.html)

(www.nyc.gov/html/planyc2030/html/plan/buildings_plan.shtml)

(www.dos.state.ny.us/code/energycode/Code.htm)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녹색관광 사업' 추진 (런던)

- 런던시는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관광업소가 환경친화적으로 운영하고 에너지비용을 절감하도록 하는 '녹색관광 사업'을 추진함. 시는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에너지비용 절감 우수 관광업소에 포상을 하고 공공교통 이용과 지역 문화활동, 오픈스페이스를 장려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업소를 대상으로 '녹색인증서'를 수여함.

- 이 사업의 주목적은 ① 자원 관리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② 에너지비용을 절감하며, ③ 녹색인증서를 받은 관광업소를 관광객이 이용하도록 유도해 전체 관광업소가 친환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데 있음. 최근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휴가지를 정할 때 31%가 지속가능성과 환경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www.lda.gov.uk/server.php?show=ConWebDoc,2486)

3. 지식기반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 (런던)

○ 런던시는 과학, 기술, 디자인의 강점을 살리는 지식기반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와 산업 분야 간 연계를 중점 관리하는 전담기구를 운영함. 런던개발청이 주관하는 과학산업위원회(Science and Industry Council)인 ‘Catalyst’는 기업, 학계, 금융계, 공공부문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됨. Catalyst는 지식과 산업 분야 간에 상생(相生)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나아가 과학, 기술, 디자인 분야의 성장으로 런던의 경제가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됨. 직접적으로는 런던개발청이 추진하는 경제발전 전략과 계획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

- Catalyst는 2006년 8월 ‘지식으로 수익 창출’(Profit for Knowledge)을 표방한 3개년 전략계획을 수립함.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Catalyst의 3가지 핵심기능은 ① 과학, 기술, 디자인 분야의 발전을 위한 단일 창구 역할 담당, ②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과학, 기술, 디자인 분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와 발전 도모, ③ 연구 개발에 대한 기업의 투자 확대 촉진과 투자 시 문제점 해결 등임.

- Catalyst가 그동안 해온 사업을 살펴보면, ① 런던의 바이오산업계 전체의 영업을 전담하는 기술영업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지식과 산업 분야가 동시에 성장하도록 중간자 역할을 수행하고, ② 기업이 연구개발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기초를 튼튼히 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③ 런던을 벗어나 전국 단위나 유럽연합 단위 등 광역권 조직과 협력을 도모하는 사업을 펼쳐 큰 호응을 얻음.

(www.lda.gov.uk/server.php?show=nav.00100j007001)

(www.london-catalyst.org.uk/Catalyst_Projects.aspx)

4. 첨단기술 개발과 사업 확장을 지원하는 ‘혁신네트워크’ 운영 (런던)

○ 런던 혁신네트워크(London Innovation Network)는 런던 소재 기업이 첨단기술 개발 파트너를 찾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조직임. 혁신네트워크는 유럽 기업네트워크를 본떠 설치한 조직으로 유럽연합과 런던개발청이 공동으로 재정을 지원하며, 市 기업국이 런던 기술네트워크(London Technology Network)와 런던 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운영함.

-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① 유럽 내 사업 확장에 필요한 지식과 법률 지원, ② 공공부문 입찰 정보 제공, ③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관련 사업 파트너와의 협력 관계 구축 지원, ④ 기술의 시장화·공정화 지원, ⑤ 신기술을 상품화할 수 있는 사업 기회에 대한 조언과 지원 업무 등이 있음. 특히 유럽연합의 ‘유럽 기업네트워크’와 긴밀히 협력해 유럽 내 중소기업, 연구소, 대학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음.
- 혁신네트워크는 신기술을 개발하여 지식기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중점사업으로 삼아 연구개발 분야와 기업을 서로 연결시켜 주고 기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설명회를 열거나 3천여 건의 유럽산(産) 기술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힘써왔음. 또한 변화하는 시장과 기술개발 상황에 맞춰 정보 교환과 연계사업이 필요한 기업과 연구조직을 주제별로 묶어 소모임을 운영해 왔음.
- 혁신네트워크는 유럽 기업네트워크에서 구축한 4개국 이상 600여 연구개발 정보와 기업회원 정보를 제공받아 각종 사업에 활용함. 연구개발 정보를 이메일로 신속하게 무료로 제공하는 ‘Tech Watch’ 사업도 런던 기술네트워크와 공동 진행함. 이용자가 홈페이지에서 관심 산업분야 등을 선택하면 런던을 비롯하여 유럽 전역의 해당 기술 정보를 신속히 받아볼 수 있음.

(www.lida.gov.uk/server.php?show=ConWebDoc_3399)

(www.london-innovation.org/developing-technology.php)

(www.ltnetwork.org/bfora/systems/xmlviewer/default.asp?arg=DS_LTN_PSART_58/_list.xml/85)

5. 도시경제 성장을 위해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 (런던)

○ 런던개발청과 런던 도심 파트너십(Central London Partnership)은 런던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는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런던 도심 관광개발전략'을 수립함. 이 전략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추진할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음. 동시에 市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는 '런던 관광비전'과 이의 실행계획 추진을 보조함. 특히 런던의 중심지구인 캠던, 켄싱턴, 첼시, 서더크, 완즈워스 등의 관광자원과 기존의 관광문화자원을 집중 조명함.

- 이 전략의 핵심 내용은 ① 관광산업 측면에서 런던 도심 지역의 중요성, ② 런던 도심 관광산업의 주요 현안, ③ 관광산업 진흥방안 등임.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 도시로서 위상 제고,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육성, 누구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런던을 위한 실행계획도 제시함. 런던개발청은 市 교통국, 자치구, 관광산업 관계자와 협력해 전략과 실행계획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 런던의 관광산업은 연간 128억 파운드(약 21조 9821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사업의 중요한 촉매제가 되고 있음.

(www.lda.gov.uk/server.php?show=ConWebDoc.1237)

창조·미디어 산업에 대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 (런던)

- 런던시는 문화중심지인 소호에 창조학습실험실인 '제로-원'(Zero-One)을 운영 중임. 제로-원에서는 TV, 영화, 양방향 미디어, 디지털스튜디오 등 창조·미디어 산업분야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좌담회, 전시회, 개인 장비 및 시설 등도 지원하거나 제공함.
- 제로-원에서는 영화제작기술, 뉴 미디어 분야 전문지식, 디지털 미디어와 디자인 등을 배울 수 있고, 교육 수강자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제로-원의 주요 고객은 BBC를 비롯한 TV방송국과 Moving Picture Company를 비롯한 영화제작사 등임.

(www.01zero-one.co.uk)

6. 지식기반 산업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혁신전략' 추진 (베를린)

○ 베를린시는 신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市 경제국은 혁신력을 지식기반 산업사회로 성장할 수 있는 열쇠로 보고 2005년부터 市 교육국, 문화국, 노동·사회국, 건강·환경·소비자보호국, 도시발전국 등 5개 부서와 베를린 파트너社, 상공회의소, 투자은행과 협력해 핵심기술 분야를 발굴하고 이들 분야와 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종합적인 '혁신전략'을 마련함.

- 베를린의 연구 및 산업기반을 고려하여 市가 선정한 핵심기술 분야는 ① 바이오기술, ② 제약기술, ③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④ 교통시스템 기술, ⑤ 레이저 광학 기술 등 5개 분야임. 이들 기술분야를 지원하고 산업분야와의 연계를 모색하는 경제 활성화 전략은 ① 바이오기술과 생의학기술, 레이저 광학기술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② 의료기술 선도도시가 되기 위한 마스터플랜, ③ 지속가능한 교통기술과 고용 창출을 위한 마스터플랜, ④ IT산업 입지전략 등으로 구체화됨.

- 이러한 개별 마스터플랜은 종합적인 혁신전략의 틀에서 각 협력기관의 책임 아래 통일적으로 관리되고 추진됨. 현재 각 기관이 담당하는 과제는 다음과 같음.

- 베를린 기술지원재단: 핵심기술 분야 간 전략적인 대화와 소통을 조직하고 조정·관리하는 과제를 맡음.
- 베를린 파트너社: 베를린 상공회의소와 기업연합과 협력해 핵심기술업체를 지원하고 신규 중소기업의 창업을 도우며 새로운 혁신기업의 베를린 진출을 유도하는 과제를 맡음.
- 베를린 투자은행: 핵심기술을 보유한 사람이 중소기업을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주고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상품을 적극 개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며 핵심기술업체만이 아니라 그 업체가 있는 지역의 발전도 도모하는 과제를 맡음.
- 베를린市: 정책적으로 혁신기술 분야의 사업화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관료주의를 없애는 과제를 맡음.

(www.berlin.de/sen/wirtschaft/politik/kompetenzfelder.html)

7. 경제성장의 잠재력 발굴 및 혁신 추진 (베를린)

○ 베를린시는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베를린 성장 이니셔티브 2004~2014’를 조직해 운영 중임. 성장 이니셔티브는 市 경제국이 경기 침체, 실업률 증가, 산업구조 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베를린시의 기업연합, 상공회의소, 수공업협회, 건설산업협회와 함께 2004년 발족한 기구로 2014년까지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공동으로 경제발전 프로젝트를 시행함.

- 성장 이니셔티브가 개발해 진행 중인 신성장동력 창출 프로젝트는 ① 녹색경제 추진, ② 동유럽과 중유럽에 경제 거점 확보, ③ 관광도시 조성, ④ 산업의 현대화와 혁신도시 건설, ⑤ 교통과 운송기술 도시 건설, ⑥ 베를린 신공항 사업으로 지역 발전 등을 도모함.
- 또한 성장이니셔티브는 소속 기관과 과학, 행정, 기업, 노동 분야 관계자를 초청하여 매년 11월 市청사에서 ‘베를린 경제 컨퍼런스’를 개최함. 이 행사에서는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고 전시회도 열림.
 - 2007년 제1회 행사에서는 ‘베를린 산업의 혁신과 성장력’이란 주제로 베를린 산업에 대한 진단과 함께 미래 가능성, 지식과 산업·경제의 연계 효과 등을 논의함.
 - 2008년 제2회 행사에서는 ‘혁신을 토대로 한 성장’이란 주제로 베를린의 혁신 가능성을 재정 지원, 기술력, 전문인력, 마케팅 측면에서 다각도로 모색함.
 - 2009년 제3회 행사에서는 ‘녹색경제’를 주제로 다룸. 녹색경제 측면에서 베를린의 잠재력, 특히 에너지기술 혁신 분야의 잠재력을 논의하고 기술 개발과 전략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함.

(www.berlin.de/sen/wirtschaft/politik/wachstumsinitiative.html)

8. '기술이전 제휴'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베를린)

○ 2009년 베를린에서는 44개 유관기관이 '기술이전 제휴'에 합의하고 연구기관과 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함에 따라 베를린市가 추진 중인 혁신전략도 탄력을 받음. 市는 2006년부터 베를린-브란덴부르크州의 기업연합, 화학산업연합, 전자산업연합, 베를린市의 상공회의소, 기술지원재단, 대학과 유럽 기업네트워크, 민간 연구기관 등과 함께 기술이전 강화방안을 모색해왔는데, 이번 기술이전 제휴 합의는 이러한 노력의 결실임.

- 기술이전 제휴가 시행됨으로써 市 소재 연구기관의 지식과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성과가 중소기업과 더욱 밀접히 연결되어 사업화될 수 있음. 또한 市가 2009년 10월 시행하기 시작한 기술이전 지원정책인 '기술이전 보너스'(Transfer Bonus) 제도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됨.

· 기술이전 보너스 제도는 중소기업이 자기 혁신으로 산업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으로부터 신기술을 이전받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임. 市는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소재 과학기술 연구기관과 중소기업(종업원 250명 이하, 연매출 5000만 유로(약 761억 원) 이하)이 공동으로 신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우 그 개발프로젝트에 최고 7000유로(약 1065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 기술이전 제휴의 또 다른 효과는 전문인력 확보임. 기술이전을 원하는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으로서 대학 간 연계가 강화됨에 따라 기업은 인턴십 제도를 활용해 실력 있는 대학생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음.

· 市는 대학생의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기 위해 유럽연합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 내에 설치된 사업 상담센터를 지속적으로 지원함. 사업 상담센터는 대학생이 가진 아이디어나 지식을 사업화하거나 이를 토대로 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가능성과 시장 기회 등을 상담해줌.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10/03/15/158936/index.html)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10/03/01/157375/index.html)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9/10/01/140997/index.html)

9. 벤처기업의 첨단 신제품을 지자체에서 시범 구매 (일본)

○ ‘시험발주 전국 네트워크’는 일본 전역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 단체가 공동으로 만든 전국 조직임. 현지 기업의 신제품과 신기술 정보를 웹사이트에서 소개하거나 수요자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서 홍보하여 판로 개척을 지원함.

- 우수한 제품이나 기술이 있음에도 판로가 없어 망하는 벤처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2003년 7월 사가縣에서 최초로 벤처기업의 신제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구매하는 시험발주 사업을 시작함. 그 후 2004년 6월 기후縣이 벤처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고 그 해 11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되면서 시험발주 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됨. 2007년 2월 전국 네트워크가 결성되었으며 현재 41개 도도부현(都道府縣)이 참여하고 있음.

- 전국 네트워크 홈페이지에서는 지자체의 인증을 받은 첨단제품을 ① 토목·건축, ② 환경·에너지 절약·자원 재활용, ③ 전자기기·IT, ④ 도자기, ⑤ 목공품, ⑥ 건강·복지, ⑦ 식료품, ⑧ 의료·섬유, ⑨ 기타 등 9개 주제로 분류해 소개하고 있음. 2주에 한 번 온라인 소식지도 만들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함.

- 시험발주 인정제도(정식명칭은 ‘신사업 분야 개척자 인정제도’임)를 뒤늦게 시행한 도쿄都는 2009년 10월 전국 네트워크에 참여함. 都는 수도권이란 장점을 활용하여 지방 벤처기업의 제품을 전시하거나 프레젠테이션 장소를 제공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함. 특히 2009년 10월에는 都청사에서 제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11월에는 ‘산업 교류전 2009’에도 참가함.

· 都는 2010년 3월 독자적인 홈페이지를 개설해 첨단제품을 홍보하고 있음. 제품을 ① 토목·건축 자재, ② 정보·통신기기, ③ 부품·공구, ④ 기계, ⑤ 시험·측정 기기, ⑥ 의료·복지, ⑦ 생활·문화용품 등 7개 항목으로 나누어 소개함. 2010년 4월부터는 제2차 신사업 분야 개척자 인정제도를 시행하여 ‘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사업’(R&BD)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임.

(www.sangyo-rodo.metro.tokyo.jp/shoko/sogyo/trial/torikumi/20091106.html)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0/03/20k3c200.htm)

10. 지식기반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지원 (도쿄)

○ 도쿄都 중소기업진흥공사가 운영하는 지적재산권 종합센터는, 지식기반 중소기업이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할 경우 지적재산권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상담, 보급, 자금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상담 사업: 중소기업이 지적재산권을 경영의 주요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전략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 센터 담당자가 기업을 방문하여 전략을 함께 수립하고 지적재산권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지적재산권에 관한 경영체제를 정비하도록 무료 지원함.
- 보급 사업: 월 3~4회에 걸쳐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 경영자가 알아야 할 지적재산권 전략에서부터 연구개발자나 지적재산권 담당자, 영업사원 등이 알아야 할 전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강연을 실시함. 또한 해외특허 출원 전략을 함께 세우고 기계, 화학, 전기·전자 분야의 발명 제안서 작성법도 교육함.
 - 최근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은 2009년 5월부터 시작한 성과사례 소개임. 중소기업체를 위한 홍보잡지 '아가스 21'에서는 관련 시책 정보와 수주·발주 정보, 전시회·교류회, 세미나·강습회, 이벤트 정보 등을 제공하고 특허 취득과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전략과 사례를 소개하고 있음. 매월 약 2만 부를 제작해 회원과 관계기관에 배부함.
- 자금지원 사업: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해외특허, 의장, 상표 출원비용뿐 아니라 타사나 해외로부터 특허를 침해받았을 경우 조사비용도 지원해줌.
- 都는 2010년 발명의 날(4월 18일)을 맞아 '지적재산권으로 활로를 개척하자'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음. 센터는 앞으로 타마지역의 새로운 산업지원 거점으로 이동하여 지식기반 제조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임.

(www.metro.tokyo.jp/INET/BOSHU/2010/03/22k3b100.htm)

(www.tokyo-kosha.or.jp/chizai/consultant/index.html#nicchi)

(www.tokyo-kosha.or.jp/support/jigyoo/argus21/index.html)

11. 새로운 산업·과학기술 진흥지침 시행 (도쿄)

○ 도쿄도는 대도시 과제 해결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산업·과학기술 진흥지침'을 2008년 개정해 시행 중임. 신기술의 고부가가치화, 산업 진흥, 고용 유지 및 확대를 중시한 1기 지침을 전면 개정해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술·제품이나 원천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과학기술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춤.

- 도는 2004년 2월 1기 지침을 수립한 이후 산·학·공(産學公) 제휴센터를 개설하고 나노기술 거점센터를 정비하며 산업기술대학원을 설립해 산업·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는 데 힘써왔음.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어렵다고 보고 좀 더 강도 높은 2기 지침을 2008년에 수립해 2012년까지 시행함.

- 도는 4개 중점 과학기술 분야로 ① 환경(환경부하가 적은 도시), ② 안전(안전하고 기능적인 도시), ③ 건강(건강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④ 산업(세계를 선도하는 산업도시)을 선정하고 4개의 지침, 즉 시책의 방향성을 제시함. 4개의 지침은 ① 대도시 과제 해결에 기업의 힘을 활용하고, ② 국제 경쟁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업의 기술력을 강화하며, ③ 산업·과학기술을 지탱해줄 인재를 육성하고, ④ 과학기술 기반을 강화하는 것임.

· 4개 중점 과학기술 분야에서 도민의 요구가 높은 대표적인 분야는 제2세대 바이오디젤 연료 실용화, 도시 인프라(특히 교량)의 수명 연장, 암 조기진단법 개발, 도시의 안전을 도모하는 신기술 개발과 환경비즈니스 활성화 등임.

· 4개 지침에 대한 대표적인 시책으로는 사회적 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연구개발 지원, 타마 실리콘밸리 조성, 아시아 출신 유학생 유치, 산업지원 거점 재정비, 과학기술 주간에 다양한 행사 개최 등이 있음. 특히 새로운 인재 육성 시스템을 구축해 아시아와 함께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점이 주목됨.

(www.soumu.metro.tokyo.jp/08daigaku/skshishin.htm)

(www.metro.tokyo.jp/INET/BOSHU/2008/01/22i1o100.htm)

(www.metro.tokyo.jp/INET/BOSHU/2008/01/22i1o100.htm)

12. 기업의 신기술·신제품 마케팅 지원 (오사카)

○ 오사카시는 2009년 3월 '건강한 오사카를 만들기 위한 정책비전'을 마련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임. 이 중에서 시장에서 팔리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 '마케팅 지원센터'가 주목받음. 판매력은 오사카 경제를 건강하게 만들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기업의 성장에 의욕적인 제조업체가 기술 개발과 과제 해결에 힘쓰도록 하는 원동력이 됨.

- 시는 오사카 국제경제진흥센터의 국제부와 함께 2009년 9월부터 '해외사업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할 목적으로 '마케팅 지원센터'를 설치함. 국제경제진흥센터 국제부는 그동안 중소기업의 무역거래와 중국·베트남·인도 등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상담 등을 진행해 왔음.
- 시는 '오사카 산업창조관'도 운영하면서 2009년 한 해 동안 800건의 비즈니스 매칭 성과를 거둠. 비즈니스 매칭이란 기업이 희망하는 사업 파트너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임. 시는 과제 해결형 신제품 개발 네트워크도 구축해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을 일본 전역의 공공기관 및 경제단체와 연결해주고 있음. 2009년 과제 주제는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공동연구·기술 개발'로 3개 기업이 선정되어 시립 공업연구소와 함께 '저환경부하형 플라스틱 도금기술과 초미세 전자회로 형성 기술' 개발에 착수함.
- 시는 시의 경제력을 높이기 위해 3가지 지표를 정하고 목표 달성에 힘씀. 첫 번째 지표는 제품 출하액에 반영된 부가가치액 비율로, 일본 최고 수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06년에 이미 주요 도시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달성함. 두 번째 지표는 마케팅 지원센터와 산업창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로, 2011년까지 90%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임. 세 번째 지표는 시립 공업연구소와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기업 수로, 목표치는 2009~2011년 누계 50개 회사임.

(www.city.osaka.lg.jp/seisakukikakushitsu/page/0000051494.html)

(www.city.osaka.lg.jp/seisakukikakushitsu/page/0000050635.html#4)